"내가 그린 태극기" 제92주년 3·1절을 앞두고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일곡도서관에서 유치원생들이 태극기 그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1절 대통령 표창 … 수피아여학교 故 김안순 선생

광주경찰서 앞 만세 부르다 옥고

전국 176명 중 유일한 여성

나주 출신 故 김안순 선생이 제92주년 3·1절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지난 2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선정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76명 중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인 故 김안순(1900~1979·사진) 선생이 대통령 표창에 선정,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3·1절 행사에서 선생의 유족이 수상한다.

1919년 3월 10일 당시 19세의 김안순 선생은 광주 수피아여학교 고등과에 재학중, 광주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생전의 김안순 선생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해 일한 게 무슨 큰 일이라고 세상에 밝히느냐"며 그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길 꺼렸다.

1979년 김안순 선생이 사망한 후 유족들은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애국지사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독립운동 당시 '김안순'이었던 이름은 세 번이나 바뀌어 입증이 어려웠다.

옥고를 치른 후에도 일본 경찰의 감시가 계속되자 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기독병원(당시 제중병원)에서 일할 때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김정숙'이란 이름을 썼다. 호적은 김유운, 주민등록은 김서운으로 돼 있었다.

일본 경찰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며 그 당시 관련된 학생들의 수피아 여학교 학적부를 가져가 버려 김안순과 김유운이 이명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후 유족들과 국가보훈처는 김안순 선생의 흔적들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지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형무소에 투옥될 당시 찍었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지문이 일치한 것.

1일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손자 김성호(59)씨는 "나라를 위해 고생한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라도 알리게 돼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안순 선생 외에도 정부가 국내외 사료를 통해 새로 확인한 독립유공자 176명 중 광주·전남지역 애국지사로는 1920년 8월 나주군(現 나주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자금 모금을 하다가 체포돼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른 故 정득수 선생(건국훈장 애족장)과 1920년 2월 21일 화순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체포돼 징역 6월의 옥고를 치른 故 천재섭 선생(대통령 표창)등 2명이 포함됐다.

/양수현 yang@kwangju.co.kr

서구청, 부동산 투기 조장?

구보에 '큰 부자는 미개발지·땅 …' 광고 논란

광주시 서구가 구보에 부동산 투자 내용을 담은 상업성이 짙은 광고를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광고에 대해 구청측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내용이 부동산 투기 광고나 마찬가지 라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 정보홍보실은 매달 1차례씩 발행되는 구보인 '서구민 한가족 신문' 7만여부를 최근 제작해 각 동주민센터와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총 16면으로 제작된 구보에는 서구와 서구보건소, 서구의회, 주민자치센터 소식 등을 중심으로 공익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과는 달리 구보의 마지막 면인 16면에는 '당신의 미래를 밝게 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인중개사 전면광고가 실려있다.

전면광고에는 '큰 부자는 미개발지·땅·전·답·임야에서 나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부동산 투자 성공 했던 사람의 10여 사례'라는 소제목이 적혀 있다. 소제목 아래에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 될 수 있는 땅을 구입했던 사람 ▲개발 진행형 방향 땅을 찾아 다녔던 사람 ▲향후 새로운 도로가 뚫리는 통로를 구입했던 사람 등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례 10가지가 등장한다.

광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공인중개업 업무와 땅에 대한 투자 수준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땅 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의 광고가 담긴 구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자치구의 구보 광고 대부분이 전문학교의 국비 신입생 모집이나 광주시민프로 축구단 시민주 공모 등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 공공발간물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에 따르면 선정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광고의 내용은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서구 정보홍보실 관계자는 "인쇄 계약 당시 맨 뒤면 광고는 인쇄소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했고, 그에 따른 실린 광고"라며 "구보 편집 당시 광고의 적절성을 놓고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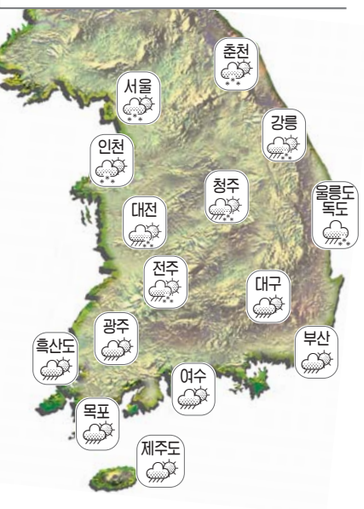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3분 / 해짐 18시 27분 — 달뜸 04시 43분 / 달짐 15시 14분

낮부터 맑음

흐리고 비가 내린 후 오전에 점차 개겠다.

광 주	오전에비온뒤갬	3/6℃
목 포	오전에비온뒤갬	3/5℃
여 수	오전에비온뒤갬	5/8℃
나 주	오전에비온뒤갬	3/6℃
완 도	오전에비온뒤갬	4/6℃
구 례	오전에비온뒤갬	3/7℃
해 남	오전에비온뒤갬	4/6℃
장 흥	오전에비온뒤갬	4/7℃
순 천	오전에비온뒤갬	4/7℃
영 광	오전에비온뒤갬	2/5℃
진 도	오전에비온뒤갬	3/6℃
전 주	눈또는비온뒤갬	3/6℃
군 산	눈또는비온뒤갬	2/5℃
남 원	눈또는비온뒤갬	2/6℃
흑산도	오전에비온뒤갬	3/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북동	2.0~3.0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12:32	05:08
	--:--	18:01
여수	07:40	00:49
	19:32	13: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 씨						
최저/최고	-3/5	-4/5	-5/8	-2/9	0/10	0/9

전남대병원장에 송은규씨 내정

전남대학교병원 제 30대 원장에 송은규 화순전남대병원장이 내정됐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8일 병원 6동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오는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영진 원장의 후임으로 송은규 화순전남대병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조만간 송 내정자의 승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송 내정자는 오는 27일부터 2013년 3월26일까지 3년간 병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송 내정자는 광주고와 전남의대를 졸업했으며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정형외과장 등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장을 맡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개나리·진달래 1~3일 빨리 핀다

온난화 영향 … 여수 19일·광주 26일 '꽃망울'

봄소식을 전해줄 개나리와 진달래가 평년에 비해 1~3일 가량 일찍 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개나리의 개화가 3월 21일 여수를 시작으로 같은 달 24일 광주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달래의 경우 여수가 3월 19일, 광주는 3월26일께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여수가 3월 26일~28일, 광주는 3월 31일~4월 2일로, 3월 말을 전후로 봄의 향연이 절정에 이르겠다.

한편,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봄꽃의 개화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개나리가 첫선을 보이는 시기는 1970년대 3월 24일에서 2000년대 3월 14일로 10일 가량 빨라졌다. 진달래는 1970년대 3월 24일에서 2000년대 3월 23일로 1일 가량 일찍 꽃이 피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